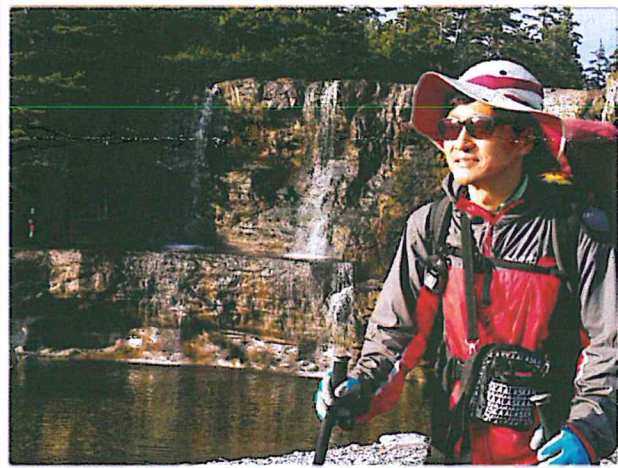


VISION LETTER

from Vancouver, Canada



밴쿠버에서 인사드립니다

가을을 맞이한 밴쿠버의 날씨는 따뜻함과 쌀쌀함이 교차하는 시기이지만 사람들에게 푸근함을 안겨 주는 풍요의 계절인 듯 합니다. 곧 비오는 시즌을 맞이하지만 공원과 운동장 트랙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산책과 운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 편안함이 묻어나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 동안 평안하시고 잘 보내셨나요?

늘 소식을 전한다 하면서도 그러지 못하는 저의 마음이 못내 아쉽기도 합니다. 저희는 늘 동역자님의 변함없이 사랑과 기도에 힘입어 영혼구령 사역에 최선을 다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밴쿠버에서 삶이 11년여를 보내고 있네요. 이 모든 사역의 일은 주님이 함께하시고 동역자님의 사랑에 기인함을 생각하니 그저 감사이고 주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앞으로도 주님이 주신 그 힘으로 달려가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선교대회를 섬기다

지난 8월 말에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서부상향교회에서 선교대회를 가졌는데 강사로 초청되어 아내와 함께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해마다 자체적으로 선교대회를 가지므로 그들로 하여금 선교에 대한 더 깊은 관심과 마음을 갖게 하고 선교를 효과적으로 돕기 위해 기도하며 전략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머무는 동안 네 번에 걸쳐 말씀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전하는 저에게도 큰 도전이 되기도 했으며 목사님 부부와 성도들과의 교제는 참으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연락처

인터넷폰: 070-4191-1916

밴쿠버: 1-778-882-0691

한국: 010-7478-0802 (이보리)

jb0191@hanmail.net



PRAYER REQUEST

1.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에서 사역하게 하셨습니다. 끝까지 영혼 사역 잘 감당하며 나가도록
2. 어머니 기도회와 목회자 기도회 그리고 성경공부(나사렛부부, 가정) 등 사역을 통해 열매들이 맺히며 주님의 온전한 나라에 복음이 전파해갈 수 있도록
3. 계속되는 물건도와 홈리스 전도에도 주님이 은혜 주시고 결실이 맺히도록
4. 자녀들이 저들의 일터에서 맡겨진 일을 굳건하게 잘 감당해갈 수 있도록

요즘 저는...

요즘 저는 새로운 것(?)과 사랑에 빠졌어요. 그것은 오카리나입니다. 작년에 오카리나를 손에 잡고 불다보니 은은한 소리에 매력을 갖게 되었지요. 동영상 통해 배우는 초보이지만 요즘은 전도하는 장소에서 겁 없이 가끔 불곤 합니다. 가스펠송이나 찬송가 등으로 사람들의 영혼 깊은 곳에 터치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전철부근이나 사람들이 움집해 있는 곳이면 사용하고 있지요. 작은 악기이지만 복음 전하는데 사용되고 있음에 감사하며 어느 자리에도 복음이 전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입니다. 위해 중보를 부탁드립니다.

문목사님,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힘내십시오. 함께 마음을 나누는 것이 이렇게 시간이 흘렀는데도, 너무 쉽게 교회에 계속 참여하며 감사하며 믿고 계속 한 마음으로 성경이 있는 기도합니다. 교회가 산복권하며 목사님의 하시는 말씀에 주의 크신 은혜 잊기를 기도합니다. Shallom!
이리부 르고,

가정사역을 계속 펼쳐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캠퍼스 사역 이후에 새로운 사역을 향한 뜻을 갖게 하시고 이곳 캐나다 CCC에서 갖는 수련회에 참여하고 사역자 모임을 통해서 하나하나 알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캠퍼스 사역과는 다르기에 시간이 요구되지만 너무 서두르지 않고 하나하나 경험하며 배워가고 있습니다. 특히 주변에 필요한 가정을 만나면서 실제 그들과의 만남을 통해 더 실재를 경험하고 깨우쳐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가정의 문제가 있음을 많이 느끼고 케어가 필요함을 깨닫게 하면서 더 기도와 관심을 갖고 달려가야 함을 목도하며 기쁨가운데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몇 달 전 빅토리아 섬에서 가정세미나 수련회를 가진 이후에 다양한 영역을 배워가고 알아가는 동안 먼저 저희부터 더 새롭게 해야 함을 발견하고 계속 다져가는 소중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밴쿠버는 물론 캐나다 땅가운데 힘들어 하는 가정들을 세우는 일에 주님이 아이디어 주시고 잘 도울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주시도록, 무엇보다 주님께서 지혜 주시도록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WCT(West Coast Trail) 트레킹!

이번 여름에 저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반인들에게도 주님의 마음이 전해지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가끔 그들과 함께 산행을 가기도 했지요. 세계 3대트레일중에 하나인 빅토리아섬에 있는 West Coast Trail 이라는 곳으로 가서 7박 8일간의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산과 바다로 어우러져 있는 지역에서 트레킹하는 것은 저에게는 사치처럼 느껴져 꺼려지기도 했지만 믿음으로 도전해 보았습니다. 거리가 75km 였지만 25kg의 배낭을 메고 가기에는 엄청난 힘이 요구되었습니다. 마치 군대훈련을 하듯.. 하지만 기쁨가운데 나아갔기에 거뜬히 해내고 돌아왔네요. 누구나 한번 도전하고 싶은 그곳을 해내고 돌아오니 기쁨 가득했지요. 그곳의 자연은 참으로 아름다움의 극치였지요. 앞으로 더 큰 어려움을 만나도 해낼 것 같은 그러나 그 가운데는 오직 주님이 함께하였기에 가능함을 고백할 수 있네요.

